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중년남성 정장디자인(제1보)

The Formal Wear Design for Visual Effect of Mid-Aged Men's Shape(Part I)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 순 천* · 이 순 흥

*Dept.of Fashion design, Chosun University
Dept.of Clothing and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on chun Park* · Soon hong Lee
(2002. 5. 1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fitable clothes design of middle-aged men by examining visual effects in physical design.

The methode of study is experimentation. The sample of this study is people who live in Kwangju, Korea and 20-50 age's 719.

The difference of physical design effect by arrangement, pattern and the shape of body. There are partly resemblance difference in physical design visual effect by the shape of body and clothes design(arrangement and pattern)

In weak type, single suit with striped pattern and double suit with check pattern make the upper body look short. Otherwise, double suit with striped pattern have man look tall. In standard type, single arrangement suit with striped pattern make the lower half of body long, so make man look tall. And double arrangement suit with striped pattern have man look tall. The suit without pattern have one's shoulder look wide.

In pyknic type, striped pattern make the lower half of one's body look long. But single arrangement with striped pattern have the upper body look big. single suit with striped pattern make lower half of body look long and check pattern make it look short.

Totally, arrangement, and pattern are very important clothes due to give an effect on whole visual effect man's suit. Also, these dues were felt differently by each types of body. So, it is confirmed that the type of body is important fluent to make people perceive.

Key words: physical design visual effect, clothes image, visual perception;
신체디자인 시각효과, 의복이미지, 시각

I. 서 론

의복은 개인의 외면적인 표현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인 표현도 포함된 일종의 무언의 언어라 할 수 있

다. 특히 남성들 사회에서 의복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며 성취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남성들에게 의복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표현방법인 동시에 자기 만족을 위한 개성 표현 및 연출의 한 방법이다.

이렇듯 의복은 자기 자신을 확립하고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되어지는데, 신체 불만족을 보상해 주거나 또는 신체 만족과 불만족이 의복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들의 자존심에 영향을 주며(Sontag & Schlater, 1982), 더욱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성공을 위한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그에 따른 의복 유형과 착장법, 체형 관리 심지어 성형수술에까지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중년남성들에 의해 가장 많이 착용되어지는 정장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기본 형태로서 소재나 단추 수의 변화로 디자인에서는 미미한 변화 정도만 있어왔다. 즉 남성 정장은 근대 남성복 형태가 정착된 이후로 형태 변화가 거의 없었고, 착용되는 의복 유형도 때와 장소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규범이 있었으나 최근의 다변화된 생활양식과 성 역할 태도 등의 변화로 남성 정장에도 활동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의식의 변화가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감성으로 연결되는데, 정장 분야에서도 소비자의 높은 수준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체형의 변화 경향에 대한 정보와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체형에 적합한 시각 효과를 위한 중년남성 정장 디자인에 따른 시각 효과를 신체 디자인적인 면에서 고찰하여 체형에 적합한 시각 효과를 위한 중년남성의 정장 디자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체형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 구성 요인을 파악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중년남성들이 표출하고 싶은 시각적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체형에 대해서 적절한 정장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의류업체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며 맞음새가 편안한 고품질의 신사복 제품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의 일환이 되었으면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각의 특성에 따른 의복 이미지

인간의 눈을 통해 외계의 사물과 그 변화를 감지하는 과정을 시각(視知覺)이라고 한다(오미겐타로, 1991). 인간은 어떤 감각보다도 시각을 더욱 많이 경험

하며 따라서 시각은 세계에 대한 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시각 디자인이나 20세기의 회화에 있어서는 강도 높은 시각적 표현의 수단으로 착시를 많이 이용해 왔다. 착시는 디자인, 회화, 건축, 조명, 조경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주면서 현대 시각 예술의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미정 · 이인자, 1999). 특히 의복 분야는 디자인 요소와 형태의 조합에 의해 지각자의 눈이 포착하는 형상과 인상 그에 따르는 판단의 조절을 통해서 의복 디자인 요소와 형태의 조합에 의해 개개인의 체형에 적합한 시각 효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의복지각은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인 선, 색, 형태, 공간, 표면 유형 등에 대한 개별의 지각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적인 영상이며 시각에 의해 좌우된다. 의복의 전체를 나타내는 디테일 등의 상호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어떤 디자인 요소보다 감정과 정서 등을 전달하여 연상 디자인 시각 효과를 좌우한다.

이러한 현상은 관찰자가 시각적 형상을 인지할 때는 형태 전체와 부분의 비교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지각 관계(directional perceptible relation)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의 과거 경험, 지식, 기대의 추론에 의한 비교로부터 오는 간접적인 관계(inferred relation) 속에서 사물을 지각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유진, 2000).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상, 심상, 영상 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란 결국 그 대상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다. 결론적으로 의복 이미지란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반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흔히 내리는 의복에 대한 평가들이 의복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복 이미지는 의복에 대해 연상되어지는 시각적 이미지의 모든 것으로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며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 감정과 연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의복 · 인체 구조가 주는 복식 조형에서의 시각 효과는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 디자인 요소가 상호 어우러져 체형의 지각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신체 디자인 시각 효과(physical design visual effect)와 특별한 느낌이나 분위기를 유발시키는 연상 디자인 시각 효과(associate

design visual effect)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이미지 평가를 위한 선행연구는 반대개념의 형용사 쌍에 의한 의미미분척도 혹은 양극화되지 않은 개별적인 평가 용어에 의해 의복의 시각적 느낌을 측정한 후 그 요인 구조를 밝힘으로서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을 객관화했다. 또한 다차원 척도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의복이미지를 평가하는데 내재된 차원을 규명하였다.

2. 중년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의복디자인

1) 중년남성의 신체적 특징

중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다. Erikson(1963)에 의하면 중년은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는 일곱 번째 위기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생산성은 성숙한 성인이 미래세대를 이끄는데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의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음세대를 통해 지속적인 인생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고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침체성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년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의 주기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절정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시기로 표현되고 있다(조복희, 1991).

탈부모기, 빈보금자리기, 제7의 심리 사회적 위기, 제2의 사춘기 등으로 표현되는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40~59세의 성인을 말하며, 현대과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전 인생주기의 약 1/4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중년 인구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송화숙, 1998). 중년의 의미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며 예전에는 청년기가 황금의 인생기였으나 평균수명의 대폭적인 증가와 배울 기회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중년을 성숙의 정점으로 만들 어놓았다(오경택, 1999).

개인의 신체는 각 부위가 동일한 비율로 성장하지 않고 성장비율과 변화율이 달라 연령층과 부위에 따라 특징적인 변화를 나타내면서 각기 서로 다른 체형을 이루게 되며, 특히 중년이후가 되면 피하지방분포가 부위별로 달라 체형변화가 현저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帽山勝子, 1976; 유신정, 1991).

남자는 성장해가면서 여자와는 다른 외형적 특성을

보아는데, 성인남자의 체형은 골격이 크고 강하며 근육이 발달하여 장대한 느낌을 주며, 이는 주로 상반신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어깨너비가 넓고 허리너비가 좁으며, 특히 상반신이 발달한 역삼각형 형태의 체형특징을 보인다(柳澤燈子, 松山容子, 1979). 신체비례에 있어서도 목이 굵고 어깨가 넓으며, 허리위치가 낮고, 무릎관절이 높고, 등길이가 길다. 또한 성인남자는 연령대가 증가에 따라 너비, 두께, 둘레항목에서 거의 유의차를 보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슴, 허리, 엉덩이 둘레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 편평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여 가슴, 허리, 엉덩이부위가 원통형을 나타내고, 측면의 비율은 감소하여 허리두께에 대해 가슴두께보다 엉덩이 두께가 더 크게 나타났다(김규선, 1993; 김구자, 1981; 김은옥, 1983; 안영실, 1983).

본 연구에서는 중년남성의 체형을 Kretschmer(1936)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마른 형, 표준형, 비만형의 3가지 체형으로 분류하여 연구방법에 사용하였다.

2) 중년남성을 위한 의복디자인

최근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남성의 외모와 의복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남성의복에 대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Havasy, 1985). 김재희, 정삼호(1995)는 성인남성은 유행형 재킷보다는 전통적 재킷디자인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이은미, 강혜원(1994)은 20대와 40·50대 모두 싱글정장을 더블정장보다 더 활동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보수적인 의복은 진실하고 신뢰성 있는 인상을 주었고(Paek, 1986), 인습적이며 격식 차린 인상을 주었다(Sweat & Zenter, 1983).

고애란(1983)의 연구에 의하면 싱글양복이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의 정신노동자에 의해 넓게 수용되었다. 여밈은 싱글정장과 더블정장으로 나뉘어지고 싱글정장은 보수적인 클래식이며, 더블정장은 우아한 클래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더블정장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린다. 깊은층은 캐주얼 재킷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유경숙(2000)의 연구에서는 유행형 재킷스타일보다는 전통형 재킷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으며, 전통형인 싱글 재킷이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의 정신 노동자에 의해 넓게 수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유경숙(1996)은 연령별 차이에서 30, 40대의 남성은 단추 2개 싱글재킷을 선호하고, 20대 남성은 단추 4개 더블 재킷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몸에 잘 맞고 적절한 옷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고(Lowe, 1991; Smathers, 1978)의 복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개인적 수용 그리고 사회적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lomon, 1985).

최근 짧은 층의 신사정장은 캐주얼스타일과 가미되어 단추 수의 변화로 칼라의 위치가 변화되어지고 있으며, 짧은 층에서는 그나마 디자인에서 허리를 꼭 맞게 한다든지 소매통을 꼭 맞게 입혀지는 캐주얼 신사정장도 많이 착용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년남성들에 의해 가장 많이 착용되어지는 신사정장은 디자인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중년남성들이 변화보다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착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으며 색채에 있어 서도 명도와 채도가 낮은 중간색이 어울린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나라 신사복의 전반적인 경향이 격식을 차린 딱딱함이었다면 최근에 들어와 변화된 모습은 캐주얼 지향의 편안함으로 자리잡아 가는 양상임을 알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실험물에 대한 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연구방법으로,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물은 정장을 입은 중년남성의 모습으로 의복 디테일디자인을 여밈, 단추 수, 소재무늬의 3종류와 착용자 디테일인 체형을 더하여 연구하였다.

착의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97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40~59세 근거하여 유사한 신체치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년남성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계측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얼굴이미지와 체형이 합당한 모델 3명을 선정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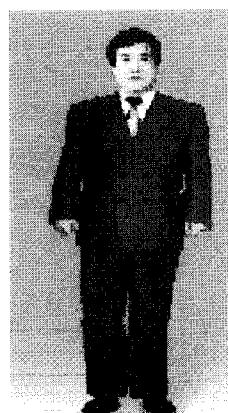
표준체형은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의 평균치수인 키 166~167cm, 몸무게 67kg, 가슴둘레 94cm, 허리둘레 86cm, 엉덩이둘레 94cm에 가장 근접하며 일반적인 체형과 평범한 이미지를 갖는 5명의 모델을 선정하여 그 중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1명을 착의모델로 선정하였다. 비만체형은 신체치수의 키는 동일하고 가슴둘레 110cm 이상, 허리둘레 100cm 이상, 엉덩이둘레 110cm 이상의 신체치수를 가진 10명의 중년남성 모델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통하여 그 중에서 각 1명을 선정하였다. 마른체형은 국민표준체위 신체치수의 키는 동일하고, 가슴둘레 75cm 이하, 허리둘레 70cm 이하, 엉덩이둘레 80cm 이하의 신체치수를 가진 10명의 모델 중 예비조사를 통하여 그 중에서 각 1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얼굴유형에 조합되어질 정장 디테일디자인 결정은 내용분석법과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중년남성들의 외출복으로 가장 많이 착용되어지는 정장을 디자인별로 사진을 수집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실험의복은 단추는 2개(25mm)로 통제하였으며, 여밈은 싱글, 더블형이, 직물무늬는 민무늬, 줄무늬, 체크무늬, 체형은 마른형, 표준형, 비만형이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완성된 자극물의 수는 여밈(2)×직물무늬(3)×체형(3)을 조합한 18개였다.

실험 디테일디자인이 적용되도록 실험의복은 와이셔츠와 넥타이는 체형별로 전부 공통되게 사용하였고, 실험의복에서 민무늬 2버튼정장은 LG패션과 캠브리지 멤버스에서 사이즈 별로 대여하였다. 그리고 줄무늬정장과 체크정장은 시판되어지는 정장의 색상이나 소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조사대상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예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줄무늬와 체크정장은 연구자가 소재를 선정하여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실험의복에 사용된 소재의 색상은 색채의 영향을 덜 받는 중명도의 회색을 사용하였으며, 춘추용 외출복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Wool 70%, Poly 30%의 개버딘으로 선정하였다. 줄무늬와 체크원단은 Wool 50%, Poly 50%의 혼방소재를 사용하였다.

평가용 실험물을 제작하기 위해 체형별 착의모델에

[그림 1] 싱글여밈
표준체형[그림 2] 싱글여밈
비만체형[그림 3] 싱글여밈
마른체형[그림 4] 더블여밈
표준체형[그림 5] 더블여밈
비만체형[그림 6] 더블여밈
마른체형[그림 7] 싱글여밈
표준체형 줄무늬[그림 8] 더블여밈
표준체형 줄무늬

게 실험의복을 착용시켰으며, 실험물에 얼굴을 넣어서 제작한 이유는 실험물에 얼굴이 없을 경우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넣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전부 촬영하였다. 제작된 실험물은 [그림 1~그림 18]과 같다.

배경은 회색을 사용하였고, 다른 실험물에 시선을 빼앗기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탕에 흰 종이를 붙였다. 사진크기는 12×22cm이며, A4크기의 흰색종이에 사진을 붙여서 사용하였으며 제시하는 사진은 하얀 마분지에 붙이고 투명한 비닐 파일에 끼웠고 마분지 위에는 각 사진의 번호를 기록하였다.

측정방법은 7점 의미미분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

항은 양극으로 된 형용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뒤쪽에 위치한 형용사에 해당된다. 즉 '어깨가 넓어 보인다-어깨가 좁아 보인다', '배가 나와 보인다-배가 덜 나와 보인다', '키가 커 보이는 - 키가 작아 보이는' 의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어깨가 넓어 보이거나, 배가 나와 보이거나, 키가 커 보이는 것에 해당된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59세까지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편의표집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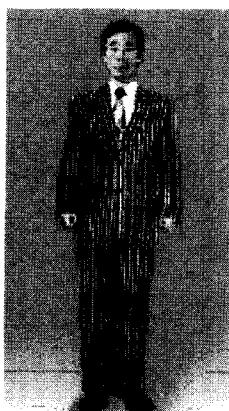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3월이었다. 전체적으로 756



[그림 9] 싱글여밈
비만체형 줄무늬



[그림 10] 더블여밈
비만체형 줄무늬



[그림 11] 싱글여밈
마른체형 줄무늬



[그림 12] 더블여밈
마른체형 줄무늬



[그림 13] 싱글여밈
표준체형 체크무늬



[그림 14] 더블여밈
표준체형 체크무늬



[그림 15] 싱글여밈
비만체형 체크무늬



[그림 16] 더블여밈
비만체형 체크무늬



[그림 17] 싱글여밈
마른체형 체크무늬



[그림 18] 더블여밈
마른체형 체크무늬

부가 회수되어 이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한 719부가 최종 분석자료에 사용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백분율, 삼원변량분석, MCA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중년남성 정장의 여밈, 무늬, 체형에 따른 신체디자인 시각효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조적 분석으로 MCA

〈표 1〉 여밈, 무늬 및 체형에 따른 신체디자인 시각효과의 차이 (N=719)

분석 방법	변량원	부위	df	여깨 F		배 F		키 F	
3원 변량 분석	주효과	여밈	1	24.60**		3.33		28.54**	
		무늬	3	25.69**		17.60**		58.60**	
		체형	2	284.26**		36.62**		123.72**	
	2원상호작용효과	여밈 × 무늬	3	.46		2.46		5.47**	
		무늬 × 체형	6	.26		2.12		10.30**	
		여밈 × 체형	2	1.41		7.08**		.16	
	3원상호작용효과	여밈 × 무늬 × 체형	6	2.83*		2.16		4.71**	
집단내 오차			719						
MCA	요소	속성	N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여밈	싱글	360	.20		.10		-.27	
		더블	359	-.20	.11	-.10	.06	.27	.14
	무늬	민무늬	239	-.49		.32		.38	
		줄무늬	240	.40		.17		-.85	
		체크무늬	240	.08	.20	-.48	.21	.48	.32
	체형	마른형	239	1.66		.37		-1.13	
		표준형	240	.05		.10		-.15	
		비만형	240	-.69	.74	-.46	.20	1.27	.51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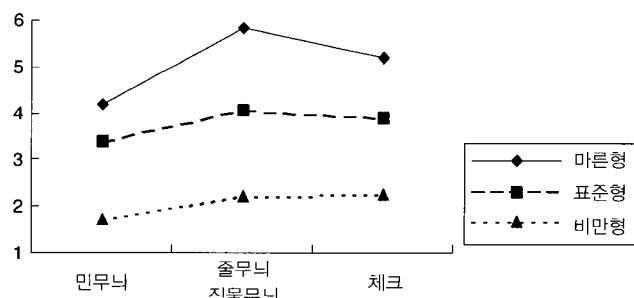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어깨 요인은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주효과를 보면, 여밈, 체형, 무늬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MCA에서 나타난 여밈에 따른 차이를 보면 더블여밈이 싱글여밈보다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은 비만형일 때 어깨가 가장 넓어 보이고 마른형일 때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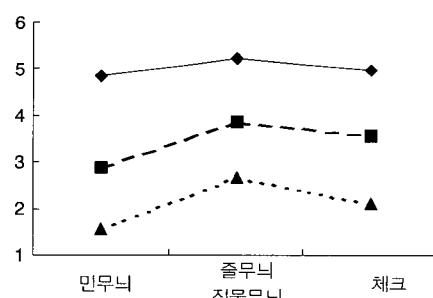
좁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는 민무늬가 어깨가 가장 넓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줄무늬 정장이 어깨가 가장 좁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깨에 대해 여밈, 무늬, 체형에 의한 상호작용효과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19], [그림 20]와 같으며, 이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치는 〈표 2〉에 제시되었다.

[그림 19], [그림 20]과 〈표 2〉에서 어깨에 대해 싱글여밈의 경우 마른형은 줄무늬일 때 가장 어깨가 좁아



[그림 19] 어깨와 여밈, 무늬 및 체형에 의한 상호작용 형태(싱글 여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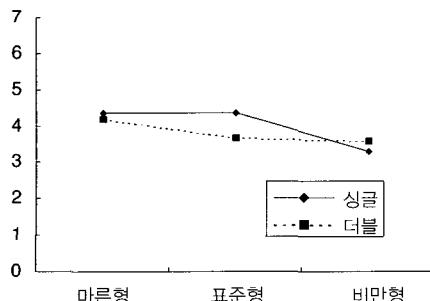
[그림 20] 어깨에 대한 여밈, 무늬 및 체형에 의한 상호작용 형태(더블 여밈)

〈표 2〉 어깨에 대한 여밈, 무늬 및 체형에 따른 평균치
(N=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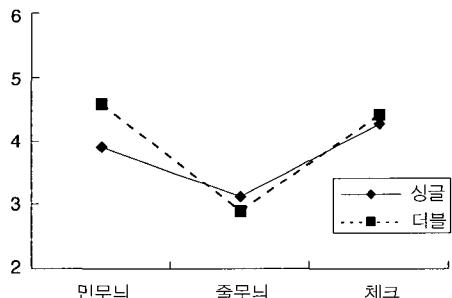
체형	싱글 여밈			더블 여밈		
	마른형	표준형	비만형	마른형	표준형	비만형
민무늬	4.18	3.40	1.73	4.85	2.90	1.55
줄무늬	5.85	4.08	2.20	5.25	3.85	2.65
체크	5.20	3.90	2.25	4.97	3.55	2.10

보이고, 표준형과 비만형은 무늬의 변화에 대해 비슷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 여밈의 경우 마른형은 무늬의 변화에 대해 비슷하게 평가되었고, 표준형과 비만형은 민무늬가 어깨가 가장 넓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부분에 대해 여밈, 체형의 독립요소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주효과를 보면, 체형, 무늬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MCA에서 나타난 무늬는 체크무늬가 배가 가장 많이 나와 보이고, 민무늬가 배가 가장 덜 나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비만형이 배가 가장 나와 보이는 것으로



[그림 21] 배에 대한 여밈 및 체형에 대한 상호작용형태



[그림 22] 키에 대한 여밈 및 무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나타났다.

배 부분에 대해 여밈과 체형에 의한 상호작용효과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1]과 같으며, O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치는 〈표 3〉에 제시되었다.

[그림 21]과 〈표 3〉에서 배 부분에 대해 싱글 여밈은 체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어 비만형이 가장 배가 나와 보이는 평가되었다. 한편 더블 여밈은 체형의 변화에 배 부분의 느낌을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키 요인에 대해 여밈, 무늬, 체형의 3개의 독립요소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여밈과 무늬, 무늬와 체형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주효과를 보면 여밈, 무늬, 체형에 따라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MCA에서 나타난 싱글여밈이 더블여밈 보다 키가 더 커 보였으며, 무늬는 줄무늬가 키가 가장 커 보이고, 체크무늬가 키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은 마른형이 가장 키가 커 보였고, 비만형이 가장 작아 보였다.

키 부분에 대해 여밈과 무늬에 의한 상호작용효과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2]와 같으며, 이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치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그림 22]에서 키에 대해 민무늬의 경우 싱글이 키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무늬와 체크일 경우는 여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배에 대한 여밈 및 체형에 따른 평균치
(N=719)

체형	여밈	
	싱글	더블
마른형	4.37	4.20
표준형	4.36	3.67
비만형	3.31	3.60

〈표 4〉 키에 대한 여밈 및 체형에 따른 평균치
(N=719)

무늬	여밈	
	싱글	더블
민무늬	3.89	4.57
줄무늬	3.12	2.89
체크	4.26	4.40

키 부분에 대해 무늬와 체형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3]과 같으며, 이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치는 <표 5>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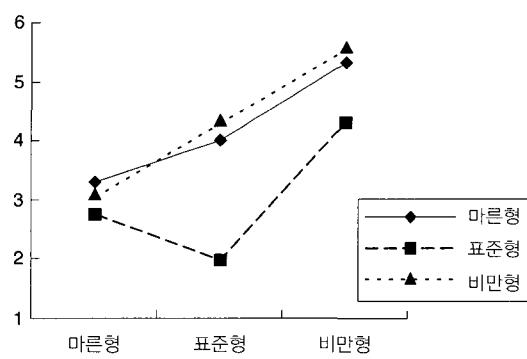
[그림 23]과 <표 5>에서 키에 대해 마른형은 직물무늬에 따라 비슷하게 지각되었으나, 표준형과 비만형의 경우에서는 무늬에 따른 차이가 있어 줄무늬가 민무늬나 체크무늬보다 더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키에 대해 여밈, 무늬, 체형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4], [그림 25]와 같으며, 이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치는 <표 6>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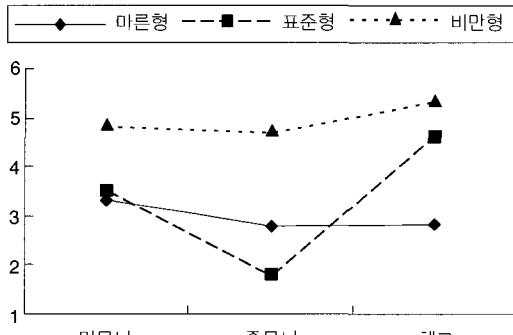
[그림 24], [그림 25]에서 싱글 여밈의 경우 키에 대해 표준형은 무늬에 따른 차이가 있어 줄무늬일 때 가장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마른형과 표준형은 무늬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났다. 더블 여밈

의 경우 키에 대해 표준형과 비만형은 직물에 따른 차이가 있어 두 집단 모두 줄무늬일 때 가장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른형은 직물의 변화에 대해 하반신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에서 여밈, 무늬, 체형에 의한 이미지 효과에서 싱글여밈의 경우 마른형은 줄무늬일 때 가장 어깨가 좁아 보이고, 표준형과 비만형은 무늬의 변화에 대해 비슷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형은 줄무늬일 때 가장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마른형과 표준형은 무늬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났다. 더블 여밈의 경우 마른형은 무늬의 변화에 대해 비슷하게 평가되었고, 표준형과 비만형은 민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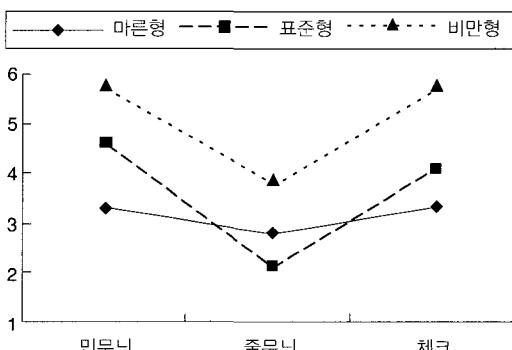
[그림 23] 키에 대한 무늬, 체형에 의한 상호 작용효과



[그림 24] 키에 대한 여밈, 무늬 및 체형에 의한 상호 작용형태(싱글 여밈)

<표 5> 키에 대한 무늬 및 체형에 따른 평균치
(N=719)

무늬	여밈		
	마른형	표준형	비만형
민무늬	3.29	4.01	5.33
줄무늬	2.74	1.98	4.30
체크	3.08	4.34	5.58



[그림 25] 키에 대한 여밈, 무늬 및 체형에 의한 상호 작용형태(더블여밈)

<표 6> 키에 대한 여밈, 무늬 및 체형에 따른 평균치
(N=719)

체형	싱글 여밈			더블 여밈		
	마른형	표준형	비만형	마른형	표준형	비만형
민무늬	3.30	3.53	4.85	3.28	4.60	5.80
줄무늬	2.78	1.83	4.75	2.70	2.12	3.85
체크	2.82	4.60	5.35	3.33	4.08	5.80

가 어깨가 가장 넓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 여밈의 경우 키에 대해 표준형과 비만형은 직물에 따른 차이가 있어 두 집단 모두 줄무늬일 때 가장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른형은 직물의 변화에 대해 하반신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밈, 무늬는 체형의 특징에 따라 그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 정장을 착용한 중년남성은 여밈, 무늬, 체형에 따라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년남성 정장의 체형에 적합한 시각 효과를 위한 의복을 디자인할 때에는 여밈이나 무늬와 같은 디테일을 잘 고려하여 디자인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체형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중년남성의 정장의 의복디자인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신체디자인적인 면에서 고찰하여 중년남성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정장디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밈은 더블여밈이 싱글여밈보다 어깨가 더 넓어 보였고, 싱글여밈이 더블여밈 보다 키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무늬가 어깨가 가장 넓어 보였고, 배가 가장 덜 나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무늬 정장은 어깨가 가장 좁아 보였으나 키가 가장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체크무늬 정장은 배가 가장 많이 나와 보였고 키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형은 비만형일 때 어깨가 가장 넓고 배가 나와 보였으며 키가 작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형은 어깨가 좁아 보이고 배가 덜 나와 보였으며,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밈과 무늬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에서 민무늬의 경우는 상글이 키가 더 커 보였고, 줄무늬와 체크일 경우는 여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늬와 체형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에서 표준형과 비만형의 경우에서는 줄무늬가 민무늬나 체크무늬보다 더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마른형은 직물 무늬에 따라 키가 비슷하게 보였다.

다섯째, 여밈과 체형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에서 싱글여밈은 비만형이 가장 배가 나와 보였으나 더블여밈은 체형의 변화에 배 부분의 느낌을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여밈, 무늬, 체형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에서 싱글여밈의 경우 마른형은 줄무늬일 때 가장 어깨가 좁아 보이고, 표준형과 비만형은 무늬의 변화에 대해 비슷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형은 줄무늬일 때 가장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마른형과 표준형은 무늬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났다.

더블여밈의 경우 마른형은 무늬의 변화에 대해 비슷하게 평가되었고, 표준형과 비만형은 민무늬가 어깨가 가장 넓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여밈의 경우 키에 대해 표준형과 비만형은 직물에 따른 차이가 있어 두 집단 모두 줄무늬일 때 가장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른형은 직물의 변화에 대해 하반신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여밈과 무늬는 중년남성 정장의 전체적인 시각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체형에 따라 시각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서 체형이 착용형태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디테일디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년남성 정장의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의복디자인에서는 디테일디자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장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상황과 목적에 알맞고 개성 및 기호를 고려하여 착용되어 진다면 체형을 균형감 있고 매력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보완하는데 더 좋은 시각효과의 의복 디테일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디자인적인 면에서 살펴보았으나 심리디자인적인 면에서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2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 고 문 헌

- 고애란(1983).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구자(1981). 피복구성학적 인체계측의 요인구조분석. 석
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규선(1993). 성인남자의 신체계측과 요인구조분석. 석사 학위논문, 호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유진(2000).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7), 976-986.
- 김은옥(1983). 성인 남자의 하반신 계측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재희, 정삼호(1995).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와 성역할 태도와의 상관 연구. 대한가정 학회지, 19(1), 129-141.
- 안영실(1983). 실루엣에 의한 남자고등학생의 체형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오경택(1999). 12주간 Circuit Weight Training 중년기 남성의 건강 관련 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오미겐타로(1991). 조형심리. 퀸민(역), 서울: 동국출판사, p. 88.
- 유경숙(1996).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경숙(2000). 노인의 성에 따른 의복 디자인 선호 및 구매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0(7), 156-160.
- 유신정(1991). 의복구성을 위한 20대 남성의 체형 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가옥(1989).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4-15.
- 이미정, 이인자(1999). 복식디자인 요소가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 44, 103-116.
- 이희승(1972).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p. 3412.
- 조영제 외 3인(1994). 디자인 사전. 서울: 안그라픽스, p.282.
- Havasy, J. B.(1985). *Male Fashion Innovators; Sex-role Type and Life style Characteristics*. Ohio State University, pp. 1-2, 61-63.
- Horn, M. J.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pp. 112, 194-195, 295-296.
- Kretchmer, E.(1936). *Physique and character*.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 Lowe. J.(1991). *Older women may finally get some clothes that fit*. Sacramento Bee, p. 5.
- Paek, S. L.(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r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10-16.
- Smathers, D. G & Horridge, P. E.(1978). The effects of physical changes on clothing preferences of elderly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9(3), 273-278.
- Solomon, M. R.(1985). *The Psychology of Fashion*. Mass., Lexington Books, 279-291.
- Sontag, M. S. & Schlater, J. D.(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 1-8.
- Sweat, S. J. & Zentner, A. N.(1985). Female Appearance Presentation: Gender Difference in Social Attribution and Situational Choi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175-186.
- 堀山勝子(1976). 被服構成學. 東京: 光生堂, pp.67-68.
- 柳澤燈子, 松山容子 等(1976). 身長と腰圍に對する身體諸側のアロメトリー. 製 2報, 家政學會誌, 30(4), 357-362.